



이지랑이 리버스 보온병

“온도 내려가면 보온병이 알아서 데워줘요”

김대성 이지랑이 대표는 주말마다 부인과 함께 등산을 하는 게 취미다. 겨울철엔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따뜻한 커피를 마시거나 컵라면을 먹는 게 소소한 재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집에서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가도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는 게 아쉬웠다. 김 대표는 보온병 뚜껑에 가열 기능을 넣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14년 창업한 뒤 이듬해부터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2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 6월 출시한 '리버스 보온병'은 세계 최초로 보온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보온병이다.

◆**센서 장착한 스마트 보온병**
핵심 기술은 뚜껑에 있는 센서 모듈이다.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 스스로 가열하는 장치다. 내부 충전식 배터리를 통해 전원을 공급한다. 온도는 사용자 목적에 따라 40도에서 95도까지 5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보온병을 뒤집어 놓으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LED(발광다이오드)창이 있어

배터리 잔류량 등 메시지가 뜬다. 배터리 충전은 USB로 하면 된다. 일체형으로 디자인해 관련 기능을 보온병 뚜껑 안에 다 집어넣었다. 관련 특허도 출원했다.

타깃 소비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김 대표처럼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아기를 둔 엄마

뚜껑 센서가 온도 측정해 내부 충전식 배터리로 가열

등산객·유아 둔 부모 겨냥 일본·독일·동남아 수출 타진

마들이다. 김 대표는 “분유를 조제하는 적정 온도는 70도를 밑폐된 상태에서 10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며 “분유 조제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아기를 데리고 어디든지 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량은 400mL, 가격은 7만 원대다.

◆**가격 낮춘 후속 제품 개발**
리버스 보온병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유아용품 매장에서



김대성 이지랑이 대표가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병을 보여주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07@hankyung.com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 제품이라 사용법을 담은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소비자들은 ‘똑똑하고 편리한 보온병’이라는 반응이다. 출시 1달 동안 1000여 개가 팔렸다. 일본과 독일, 동남아시아 업체와 수출 협

상도 추진 중이다. 후속작으로 용량을 다양화하고 가격을 내린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분유 전용으로 특화해 세척을 더 편리하게 하고 귀여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한양대 전기제어공학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1월의 으뜸중기 제품 △이지랑이-분유용 온도 유지 보온병 △다이나톤-디지털피아노 ‘DPR-3160K’ 렌탈 △유진 로트-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 △티앤에스모터스-접이식 전기자전거 ‘모아2’

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는 “10여 년 동안 국방부 국책사업 중 레이저, 분광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한 기 장비를 연구개발했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어서 창업했다”고 말했다. 회사명 이지랑이는 열과 관련한 편리한 휴대용 전자 제품을 꾸준히 내놓겠다는 뜻에서 김 대표가 지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창원산업단지 빈 부지에 첫 ‘스마트업파크’ 문 열었다

산업부·산단공, 노후산단 개선 생산·연구·편의시설 한 곳에 3만여㎡에 2481억원 투입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산·연구·편의시설 한 곳에 모은 ‘스마트업파크’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3일 창원산업단지에서 스마트업파크 출범 및 경남창원산업융합지구(사진) 개교식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스마트업파크는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혁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융복합집적 조성사업의 고유 브랜드다.

이 파크는 산단공이 보유한 유휴부지 3만7400㎡에 총사업비 2481억원(국비 602억원, 지방비 95억원, 민간 1784억원)을 투입해 창원산단에 흩어져 있는 경제 혁신 주체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으고 유기적으로 클러스터화했다. 이 파크에는 생산지원시설,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복지타운 오피스텔 어린이집 등 주거복지시설, 편의·여가시설 등이

반경 300m 안에 자리잡는다. 경남 창원산업융합지구, 근로자복지타운, 근로자숙형 오피스텔,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일부는 완공됐고 스마트혁신지원센터는 내년, 스마트업타워(지식산업센터)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남창원산업융합지구는 경상대와 경남대, 마산대가 함께 참여한 산학캠퍼스 모델에 6개 학과가 운영되며 기업연구관에는 4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창원 스마트업파크는 창업과 혁신의 공간,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성공적인 융합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국 산업단지에 노하우를 전파해 스마트업파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法 vs 소비자 정서 ... 딜레마 빠진 한샘

현장에서
문혜정 기자
중소기업부



지난주 불거진 ‘한샘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샘의 피해도 가시화됐다. 현대홈쇼핑은 5일 저녁 방송할 예정이던 한샘 쇼와 판매 생방송을 무기한 연기했다. 긴급회의 끝에 이날 오전 방송을 예정대로 한 롯데홈쇼핑은 “평소보다 매출이 10%가량 줄었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한샘 방송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도 한샘과 관련한 할인 행사를 중단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인터넷 포털에선 불매 운동 정원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작년 말 한샘에 입사한 20대 중반의 신입 여직원이 올해 초 입사 동기 A씨에게 화장실 몰카(불법 촬영) 피해를, 교육 담당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피해자는 인사팀장 C씨가 형사고소 취하 등을 중용하고 성적 모욕(혹은 성희롱)을 했다고도 진술했다. A씨와 C씨는 해고됐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다 B씨가 강력히 이의를 제

기하면서 징계 수위가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도 진술 반복 등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지난달 말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B씨는 합의된 상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모범무법인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을 지지하며 “한샘을 상대로

올 초 발생한 여직원 성폭행 뒤늦게 온라인서 논란

해고·징계 징계 조치에도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관리 책임져야”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경찰과 검찰 수사상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영식 한샘 경영지원 총괄 사장은 지난 4일 해외 출장 중 귀국해 급히 사과문을 내놓았다. 최양하 한샘 회장이 같은 날 사내 이메일을 통해 임직원에게 사과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보다 더 안전한 근무환경 대책도 약속했다.

한샘은 여직원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주 고객층도 여성이다. 아동과 여성, 가족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온 이유다. 직장 내 성교육도 비교적 모범적으로 시행했다. 매년 온라인 교육 1회, 사내 변호사가 주재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1~2회 했다. 성범죄 ‘원 아웃’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 네티즌과 소비자는 불매를 외치고 있다. ‘회사 문화에 그런 분위기 만연인 듯’(ahyul***), ‘있는 것도 내다버리고 싶은 마음. 딸 키우는 아빠로서 분노가 치밀다’(minz***), ‘물건을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체품도 많은데’(수파***).

사내 성범죄가 직원 개인 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관리 책임 및 조직문화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요즘 소비자들의 시각이다.

‘실체적 진상’을 따지기에 앞서 한샘은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다. 관련 자들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도 필요할 수 있다. 기업문화를 돌아보고 실망한 직원과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영진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이 큰 만큼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과 한샘에 자재와 제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 대리점주들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있다.

selenmoon@hankyung.com

韓 의약품 개발기술 美에 3년 뒤쳐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

한국 보건의료산업 기술 수준이 미국에 비해 3년 이상 뒤쳐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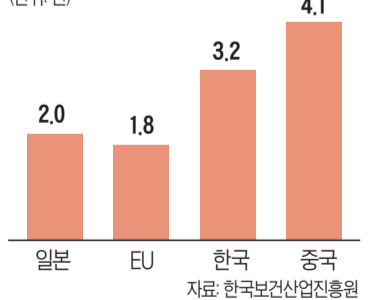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6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보건의료산업의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76.1%의 기술 수준을 갖췄고 이를 따라잡으려면 3.2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개발 부문이 미국보다 4.1년 뒤쳐져 기술 수준이 가장 낮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 대비 각각 2.1년, 2.5년의 격차를 보

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700여 명의 전문가 설문문을 통해 이뤄졌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기초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는 의약품보다 기술 수준이 높아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74.8%로 3.6년의 기술 격차를 보였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료기기 개발 수준은 73.8%로 의료기기보다 기술이 뒤떨어졌다. 유망 기술과 연계한 의료기기 개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보건의료산업 미국 대비 기술격차 (단위:년)



벤처 창업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진흥원은 “의료기기 개발 기술도 시제품 제작 기술 수준이 제품 설계 및 제조 기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 단계에서의 기술 지원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campus **JOB & JOY**
2017.11.06 ~ 11.19 Vol.133

‘클라우드 펀딩 100% 달성’
대학생 스타트업 클로렌즈

김생민도 깜짝 놀랄 리얼 재테크

대학생의 영수증

블라이드 면접 최종 점검
그룹별 상반기 기출 문제·합격팁

부수인증매체
한국경제신문

가격 4,000원 / 정기구독 80,000원 / 구독문의 02-360-4841 / 광고문의 02-360-4821 / 사업문의 02-360-4831